

---

문서번호 : 16-12-박근혜정권 퇴진 특위-16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민변][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보도자료]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전송일자 : 2016. 12. 4.(일)  
전송매수 : 총 2 매

---

## [보도자료]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퇴진특위)'를 구성하여 전 국민적 퇴진 촉구 행동에 결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3.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기관보고를 거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12월 6일 열리는 1차 청문회는 8대그룹과 전경련 회장,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재벌청문회'입니다. 검찰은 재벌들의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행위 등에 대하여 재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만 기소하였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재벌청문회는 재벌기업 총수의 입을 통하여 직접 재단 출연 등 '정경유착'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에서 누락된 재벌기업들의 '부정한 청탁'과 출연의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을 발표하

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핵심적인 증인인 △전경련 증인 허창수, 이승철, △삼성그룹 증인 이재용, △현대자동차그룹 증인 정몽구, △ SK그룹 증인 최태원, △CJ그룹 증인 손경식, △롯데그룹 증인 신동빈에 대하여, 각 그룹의 당시 민원사항 내역과 국정조사를 통하여 규명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5. 우리 모임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재벌그룹들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위 진실 규명 과제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감시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 [의견서]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2016년 1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